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2월 후보도서



《고대로부터의 통신》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 지음 | 푸른역사 | 412쪽 | 값 14,000원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금석문이라는 단편적인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하여 한국 고대사의 구성구석을 복원해가는지 그 고민과 추론의 과정을 담은 책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상력을 요구하는 연구과정들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썸데이 서울》

김형민 지음 | 아웃사이더 | 402쪽 | 값 12,000원

서울방송 교양 PD이면서 '산하'라는 필명으로 활동중인 김형민 씨의 글이다. 정신대 할머니, 파업 노동자, 노무현 대통령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시선을 들이던 저자는 진지한 메시지를 구어체와 경어체를 섞어가며 재치있게 풀어냈다.



《눈의 역사, 눈의 미학》

임철규 지음 | 한길사 | 438쪽 | 값 22,000원

우리의 감각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눈의 의미를 파헤친 책으로 눈을 통한 인식작용의 메커니즘, 특히 인식의 한계와 모순 등을 동서양을 넘나들며 분석하고 있다. 저자의 학문적 깊이와 사유체계가 돋보인다.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정준영 지음 | 책세상 | 212쪽 | 값 4,900원

현대 스포츠의 성립 과정과 특성,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 마라톤과 중산층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는 스포츠와 사회의 관련성을 찾으면서 스포츠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들을 찾고 있다.



《자거나, 내 슬픔아》

신경숙 지음 | 구본창 사진 | 현대문학 | 250쪽 | 값 10,000원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소설가 신경숙의 글과 사진작가 구본창의 단아한 사진들이 함께 어우러진 에세이집이다. 구본창의 이미지즘적인 사진들과 품격이 느껴지는 신경숙의 글이 잔잔한 어조로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임계순 지음 | 현암사 | 424쪽 | 값 15,000원

한중수교가 시작되며 부각되기 시작한 '조선족'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15세기에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조선족 역사와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본격 조선족 역사서'다.

《현대가족 이야기》

조주은 지음 | 이가서 | 348쪽 | 값 15,000원

변화된 한국 가족과 여성의 삶을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책.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와 결혼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가족'을 이용하는 거대기업의 경영정책들을 소개한다.

《하얀 가면의 제국》

박노자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14쪽 | 값 10,000원

현재 오슬로 국립대학 부교수로 재직중인 박노자가 한국 독자에게 띄우는 세 번째 사회비평에세이다. 서구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국사회를 '하얀 가면'으로 비유하고 있다.

《미래의 독자》

최윤정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40쪽 | 값 10,000원

아동문학 평론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2,3년간 써두었던 어린이책 평론들을 모았다. 외국 어린이책뿐 아니라 10여 년 간 많은 발전을 이룩한 한국 어린이책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